

오락과 교훈의 측면에서 살펴본 조선조 소설의 문제점

안 창 수

I.

소설은 하나의 문학장르로 공인되기 까지 수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락적 가치와 교훈적 가치를 내세우며 존재의 타당성을 모색해 왔다. 물론 오락과 교훈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소설이 그 존재 의의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락과 교훈적 가치를 드러 내놓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소설은 오락과 교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성장, 변모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상반된 두 요인이 소설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 요인은 소설이 사회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고, 소설이 그 본래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가로 막기도 함으로써 소설에 대한 비난의 근거를 제공하게 하기도 하는 등의 역기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런 관계의 국면을 밝혀 보는 일은 조선조 우리 소설이 부딪치고 있었던 문제들을 일정한 체계 위에서 찾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소설은 시대에 따른 의미의 편차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용어이다. <莊子>의 外物篇에서 사용될 때 소설은 大道에 미칠 수 없는 자잘한 雜談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漢書> 藝文志에서는 「街談巷語 道聽塗說」이라 하여 소설이 지칭하는 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장자>나 <한서>에서 사용

2 嶺南語文學(第14輯)

된 소설의 의미영역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규보는 시화집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백운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고, 어숙권의 <태관잡기>나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이인로의 <과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제현의 <역옹패설>과 함께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 강희맹의 <촌담해이>, 성현의 <용제총화> 등 시화나 설화, 골계담, 신변雜記 등 街談巷語나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雜錄類가 모두 소설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설은 이런 잡록류와 함께 <금오신화>,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과 같은 작품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됨으로써, 이 후 잡록류가 소설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 영역을 갖고 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설이란 용어가 시대에 따른 의미의 영역을 확연히 달리하며 전해 온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의미의 편차를 같은 용어 내에 집적시키며 의미 영역을 확산시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전 시대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대체되기도 하며 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소설에 대한 전 시대의 인식 태도가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로 이어졌으므로, 소설에 대한 인식 태도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금오신화>와 같은 류의 소설만을 따로 떼어서 논하기보다 잡록류를 함께 다루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장자>의 외물편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소설은 後漢初 「토막난 이야기를 모아서 지은 짧은 글」¹⁾, 또는 「항간에 떠돌아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쫓아들은 이야기들로 만든 것」²⁾ 등의 개념을 가지며 문학상의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설은 그 안에 불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힘써 연마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소설가라고 하는 자들은 대개 稗官에서 나왔는데, (소설은) 항간에 떠돌아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쫓아들은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비록 小道라 할지라도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원래 한 일에 이르러서는 막힐까 염려되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또한 없애서도 안 된다. 鄉里小賢들의 지은 바라도 또한 기록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 또한 樵夫狂人이라 할지라

1) 若其小說家 合叢殘小語 近取譬喻 以作短書(桓譚, 新論, 李善注, 文選三十一)
 2)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道聽塗說者之所造也(班固, 漢書藝文志)

도 議論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군자가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애서도 안된다는 말이 소설의 사회적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시를 배우지 아니 하면 말을 할 수 없다 하여서, 시가 힘써 배워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던 터 비교한다면 소설에 대한 이러한 경시 태도는 상당히 더조적이다. 시를 배워야 한다고 한 것은 시가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게 해 주며, 의지를 감발하게 하고, 사물을 관찰 해서 삼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터이,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짧막한 문장의 소설에서는 삼익 원대한 이치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소설에 대한 이러한 인식 태도는 이 후 文以載道의 문학관과 접하며 사회 내에서 소설의 위치를 더욱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文以載道의 문학관은 문장의 공교로움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거부하고 문을 載道의 수단으로 보려는 것인데, 宋代의 성리학파 접목되며 훨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드러내어 문학 자체를 경시하거나 이단시하는 경향을 드러 내기도 했으며, 문학의 경우에도 덕성을 수양하여 心性의 바름을 추구하는 데 유용한 작품 예컨대, 「滄和를 宣暢하여 가슴 속의 더러움을 씻어 버린」⁴⁾ 작품만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항간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나 모아 놓은 소설은 養心之功을 위한 다음 가짐을 흐트러뜨리지 하는 것이라 하며 쳐다보지도 말라고 배척하였으므로 소설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잡록류는 오락과 교훈의 효용성을 내세우며 사회 내에서의 존재 가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양정지는 경전과 퇴관소설을 구분한 다음 퇴관소설은 儒者들이 戲談을 만들어 심심풀이로 삼은 것이니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했고⁵⁾, 서거정도 「태평한화 골제전서」에서 골제전을 지은 것은 세상의 근심과 무료함을 없애기 위함이

3)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 孔子曰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弗爲也 然亦弗滅也 閭里小智者之所及 亦使綴而不忘 如或一言可採 此亦芻蕘狂夫之議也(班固, 위의 글)

4) 〈孔子〉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論語, 季氏)

5)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論語, 陽貨)

6)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滄和 以滌胸中之穢穢 則亦存者之一助(李珣, 栗谷全書一,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7) 愚嘗聞……曰經曰史 固賢君賢相 所以治國平天下之道也 至於稗官小說 亦儒者以文章爲戲談 或資博聞 或因破寂 皆不可無者也(梁誠之, 東國滑稽傳序)

라고 하며⁸⁾ 破閑이라는 오락적 측면에서 잡록류의 사회적 가치를 찾으려 했다. 물론 소설의 가치를 오락적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려말 최자나 이제현과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찾아진다. 최자는 <보한집>을 엮으며, 이 책이 「浮屠나 아녀자들의 한 두 가지 일에 이르러는 담소의 재료가 될만 하였다.」⁹⁾고 했으며, 이제현은 자살한 이야기를 모아 가슴 속의 답답함을 풀어 내려고 <역옹패설>을 엮었다고 했다¹⁰⁾ 이같은 사실은 소설에 대한 고려 시대의 의미 영역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이어지며 소설에 대한 인식태도도 함께 수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훈을 준다는 것은 비록 자질구레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世敎에 보탬이 될만한 것이 있다는 말이고, 덕성 함양이나 심성 수련에 치중하는 성현의 글에서 볼 수 없는 삶의 폭진한 모습을 담고 있기에 한갓 破閑이나 齊諧記로 돌려 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이승소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좀 더 파격적이어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천하의 이치는 한이 없고 사물의 변화도 그와 함께 한이 없다. 그러므로 경전과 역사 이외에 또한 百家와 여러 학술 유파가 있어 각기 자기가 본대로 학설을 세우며 책을 저술하였다. 비록 그것이 모두 성인의 경전과 합치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일단의 불만한 것이 없지 아니 하며, 오히려 견문을 넓히는 데 이바지 하고 더우기 道가 지극히 커서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유학자라고 해서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태평광기>가 만들어진 까닭이다.¹¹⁾

태평광기는 견문을 넓혀 주며, 견문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널리 아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이치와 사물의 변화가 무한하며 따라서 道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는 말이다. 삶의 이치는 다양하게 널리 있으며 각기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경전에 얽매어 소설을 배척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전의 질서만을 道의 실체로 인식하지

8) 居正之作是傳 初非有意於傳後 只欲消遣世慮 云云(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序)

9) 李學士仁老 略集成編命曰破閑 晉陽公 以其書未廣 命予續補強 拾廢忘之餘 得近體若干聯 或至於浮屠兒女輩 有一二事 可以資於談笑者(崔滋, 補閑集序)

10) 至正壬午夏 雨連月 杜門無聲音 悶不可祛 持硯承簷溜 聯友明往還折簡過 所記書諸紙背 題其端曰 櫟翁稗說(李齊賢, 櫟翁稗說)

11) 然天下之理無窮 而事物之變 亦與之無窮 故經史之外 又有百家衆技之流 各隨所見 立言著書 雖未能盡合於聖人之經 未必無一曲之可觀 猶足以資聞見之博 而益知道之至大 無處而不在焉 是固儒者之所不廢也 此太平廣記之所以作也(李承召, 略太平廣記序)

않고 道의 광범위한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이승소는 소설을 경전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고, 소설은 여전히 高見遠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승소 역시 그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고, 먼저 六經의 학문을 이룬 후에야 소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¹²⁾ 경전이 소설에 우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잡록류는 여가를 즐기려는 선비들에게 접잡은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성현의 말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교훈을 주기도 하며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씻어 주는 것이라 하여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힘써 연마할 것은 아니지만 그 효용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공자 이래의 소설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 소설에 대한 비난이 잡록류를 비켜지나 주로 <금오신화>와 같은 류의 작품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은¹³⁾ 잡록류가 오락과 교훈의 효용성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용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들이 소설의 범주에 들어오자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그것은 새로 소설의 범주에 들어 온 작품들의 작품 내적인 성격이 잡록류의 그것과 다르고, 이들 작품들에 대한 독서 계층의 확산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김시습은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불우한 생애를 보내야 했고, 이에 따라 세상에 대해 남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김시습보다 한 세대쯤 늦은 시기를 살았던 정사룡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끈다. 「재주가 있는 선비로서 그 재주를 세상에 퍼지 못한 자는 필히 소설을 즐기며 그 뜻을 부친다.」¹⁴⁾는 말이 그것인데 정사룡은 불우한 생을

12) 若能先明六經之道學 已造乎正大高明之城 則雖街談巷語鄙俚之甚者 皆理之所寓 必有起予之益(李承召, 앞의 글)

13) 조동일은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p.71)에서 소설을 비난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자료들을 열거한 다음 이들 비난이 잡록류가 아닌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송계만록>같은 데에서 잡록류에 대한 비난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며 소설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이미 잡록류에서 벗어나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14) 士之抱才器 而未施於時者 必遊戲於小說 以寓其意(鄭士龍, 禦眠楮跋)

보내 자기의 뜻을 퍼지 못한 송세림이 <어떤순>같은 책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동정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 자신도 평탄하지 못한 생을 보내야 했기에 공감의 폭이 더욱 절실했던 것 같다. 이것은 소설이 이 시기에 이미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불우객의 세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불만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사룡과 김시습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정사룡이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심심한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한 때를 잊듯이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을 읽으며 불평한 기운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소설을 즐긴다」는 말이 이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단시하는 이야기를 모아 놓는 데에서 어떤 불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시습은 읽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소설을 썼으므로, 소설은 이제 향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면서 잡록류보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소설에 대한 독서 계층의 확산과 관심의 증대 역시 중세적 이념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태평한화골제전>, <촌담해이>, <용제총화>등 잡록류는 모두 사대부 작가에 의해 한문으로 쓰여져 그들 사이에서 읽혀지던 것이었다. 국문으로 번역되어 독서 계층을 확산시킨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잡록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후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한문으로 쓰여져 주로 식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읽혀지던 오락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으므로, 다소 불경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것이 사회문제로 비약될 것까지야 없었다. 그러나 <금오신화>같은 류의 작품에 이르러 소설은 한문으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며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동방의 풍속에 여자를 諺文으로 가르치고 文字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여자들은) 평생 聖哲成訓을 듣지 못하고 三綱五常이 귀중한 것을 모른다. 諺釋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외설스럽고 불경스러운 소리인데, 부녀자들은 무지하여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올바른 책으로 여긴다. 道에 어긋나고 德을 어지럽

히는 것은 모두 이것에서 나오니, 朝家에서부터 諺稗를 금해야 한다.¹⁵⁾

諺翻傳奇는 탐독해서는 안된다. 집안 일을 버려두고 女紅을 게을리 하며 돈을 주고 이것을 빌어서 깊이 빠져서 마치 않는 데 이르러서는 家産을 기울인 사람도 있다.¹⁶⁾

위의 인용문은 둘 다 부녀자들에게 끼친 소설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의 것은 부녀자들이 소설의 내용을 몰카른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생기는 중세적 이념의 왜해를 걱정할 것이고, 뒤의 것은 소설로 인한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개탄한 것이다. 소설이 정신과 물질 양 면에 걸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하고 그 피해 또한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설을 읽는 풍조가 많은 사대부들에게까지 번져 갔다는 점이었다. 중세적 이념을 수렴하고 이것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사대부들이 소설의 탈 중세적 세력관에 침윤되는 것은 어떻게든 방지해야 할 과제였다. 정조는 문제반정을 일으켜 소설이 유행하는 풍조를 일소시키고 古交를 재건하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려 하였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소설이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소설도 이제 오락과 교훈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되풀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소설에 대한 고려시대의 의미영역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이어지며 소설에 대한 인식 태도 역시 그대로 전수되었듯이, 잡록류와 소설에 대한 장르 분화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설은 여전히 오락과 교훈이라는 효용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려 하였다.

세상에서 소설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말이 모두 鄙俚하고 다루고 있는 사건 또한 荒誕해서 모두 奇談詭譎에 빠질 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南征記>, <感義錄> 등 수 편은 사람으로 하여금 底意를 감발케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이에 楊子雲의 僭竊을 생각지 아니하고, 西施의 정그림을 본나 이 작품을 만드니 받아 갈 못 드는 이의 破寂거리이다.¹⁷⁾

15) 東裕 教女子以諺文不以文 是故 生不聞聖哲成訓 既不識三綱五常之爲重 至若諺稗 皆是淫褻不經之道 而婦女不知都出於眞屢 認以悖史 其反道悖德咸從此出 自朝家嚴禁 諺稗(洪直甄, 梅山先生文集卷五十, 梅山雜識)

16) 諺翻傳奇 不可耽看 廢置家務 怠棄女紅 至於與錢而賞之 沈惑不已 傾家産者有之 (李德懋, 士小節, 青莊館全書)

17) 世之謂小說者 語皆鄙俚 事亦荒誕 盡歸於奇談詭譎 而其中所謂 南征感義錄數篇 令人說去 使有感發底意矣 余於是乎 不思子雲之僭竊 效西隣之嘆 構成是篇 能不爲具眠

위의 인용문은 조선 후기의 한문소설 〈一樂亭記〉의 서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소설을 대하는 종래의 인식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사람으로 하여금 底意를 감발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들고 있다. 이들 작품은 당시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福善禍淫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으므로, 소설은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이 외에도 破寂거리 즉 심심풀이로 제 공하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하며 소설이 오락적인 효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이 오락적 효용성을 내세운 것은 소설을 이단시 하는 공격의 예봉을 둔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소설이 한가할 때의 破寂거리에 불과한 것이니 심각하게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었으므로 소설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세상 살이에서 생기는 근심이나 울적한 기분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던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긴장과 함께 오락도 필요하고, 마음의 근심과 울적한 기분을 씻어버릴 필요도 있었으므로 오락적 효용성을 내세운 것은 소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잡록류는 시화나 골계담, 음담패설 같은 것들을 두루 담으며 이런 이야기를 이단시하는 기존의 권위에 반발하고 있으나, 남의 이야기를 모아 놓거나 모아 놓은 이야기에 단편적인 생각을 덧붙여 놓은 글이므로 자기의 생각을 담은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아 놓은 이야기를 읽고 즐기며 가슴 속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잊어 버리자는 편찬의도가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소설은 불만을 잊어버리기 위한 글이 아니고, 기존의 규범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자기의 생각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질서가 잘못 되어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었으므로, 읽고 즐긴다는 느긋한 마음가짐보다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삶의 조건을 파악해야 하는 엄격한 비판의식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소설이 오락적 효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 태도가 지속적으로 세력을 발휘함으로써 이것은 이러한 비판의식을 둔화시켰고 비판의식이 둔화된 소설은 흥미위주의 통속소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者 一晒之資耶(晩窩翁, 一樂亭記序)

슬프다. 施耐菴과 聖嘆같은 무리들이 재주와 총명으로써 이것을 옮겨 본분에 힘썼다면 어찌 존경할 일이 아니었는가. 심한 자는 음난하고, 더럽고, 편벽되고, 기이한 말들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는 데만 힘쓰면서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한다.¹⁸⁾

위의 인용문은 소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오락적 효용성에만 힘쓴 결과 음난하고, 더럽고, 편벽되고, 괴이한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이라고 일컫는 것은 말이 모두 鄙俚하고 사건 또한 荒誕해서 모두 奇談詭譎에 빠질 뿐이다」¹⁹⁾라고 한 말이나, 「(소설이) 남녀의 婚媾에서 시작하여 구방행적을 차례로 서술하는데 지리번쇄하여 족히 취할 것이 없다」²⁰⁾고 한 것 역시 당시의 소설이 통속화되며 드러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데, 소설을 배격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들어 비난의 근거로 삼았으며, 긍정하는 쪽에서도 이러한 통속화 경향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오락적 효용성을 내세우는 것은 이제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악화시켜 소설의 사회적 위치를 위태롭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소설의 교훈적인 측면을 내세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다.

교훈의 효용성을 내세운 것은 소설이 흥미만을 내세우는 데에서 다시 배척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의도였다. 오락적 효용성은 모든 글이 道를 담아야 하고 가르침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범에 반발하며 즐거움을 주는 글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교훈의 효용성은 선행하는 규범에 동조하며 소설의 가치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오락과 교훈의 효용성은 소설의 가치를 이중의 논리로 감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도 조선 후기에 나타난 소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문제의 원인은 소설에서 내세우는 교훈이라는 것이 삼강오륜과 같은 도덕 규범이었다는 데 있었다. 소설은 기존의 규범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세상의 질서가 잘못된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라고 했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은 기존의 질서가 와해되며 이것을 떠받치고 있었던 기존

18) 嗚呼 以施耐菴聖嘆輩之才且慧 移此勤於本分事 則其可不敬之乎 甚者 敷淫穢演僻怪 務悅人目 不知羞恥(李德懋, 嬰處雜稿一, 靑莊館全書 卷五)

19) 앞의 인용문 「一樂享記序」

20) 蓋一簾宗旨 始於男女婚媾 而歷叙閨房行蹟 互有異同 皆架虛鑿空 支離煩瑣 固無足取(徐有英, 六美堂記序)

의 규범이 지니고 있던 권위가 실추된 까닭이었다. 기존의 규범이 갖고 있는 권위가 실추된 것은 이러한 규범이 더 이상 삶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며 삶의 진실을 새롭게 찾으려는 노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이 삼강오륜과 같은 도덕 규범을 계속 교훈으로 내세우자 삶의 진실을 새롭게 찾으려는 노력이 도덕 규범에 종속되며 소설은 삶의 현실규범과 분리된 채 공허한 관념만 내세우게 되었고, 이러한 공허함을 흥미 위주의 작품 전개로 채우려 했다. 소설이 교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흥미 위주의 작품 전개를 방지하자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설의 통속화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街語巷語를 모아 놓은 잡록류는 하층민들의 생활감정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도덕규범을 앞세우며 군자언하는 인물들의 위선과 허구를 공박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는 도덕규범을 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교훈으로 삼았다. 하층민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이었으나 도덕규범과 같은 데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삶의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고 풍속을 경계하는 것이 소중하고, 말에는 다듬어지고 거친 것이 있고 이 치에 이르르면 중요하다」²¹⁾고 한 강희맹의 말은 잡록류의 교훈이 삶의 바른 이치라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잡록류는 도덕규범과 같은 것을 앞세우지 않고서도, 오락적 효용성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편찬의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오락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소설이 도덕규범을 앞세우며 사회적 삶의 조건에 대한 엄격한 비판의식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속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III.

지금까지 우리 소설이 잡록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출발해서 <금오신화>와 같은 작품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 영역이 확산, 번모되어 오며 오락과 교훈이라는 두 측면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오락과 교훈의 효용성은 소설이 사회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문제점들을 느낄

21) 事無美惡 警俗者爲重 言無精粗 論理者爲貴(姜希孟, 滑稽傳序)

시키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잡류의 경우 이들은 보다 긍정적인 각도에서 작용했지만 소설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 논의의 결과 드러났다. 「語皆鄙俚 事亦荒誕」이라는 말은 이런 문제들을 집약시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속화 경향과 도덕규범으로 무장함으로써 나타난 현실과의 괴리 현상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락과 교훈의 효용성이라는 두 측면은 소설을 옹호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마저 꺼리며 소설의 탈 중세적 세계관을 염려하는 전통적인 문학관의 압력이 소설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 탓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소설은 전통적인 문학관의 논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의 이론을 갖춰 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소설은 오락과 교훈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인식태도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소설이 전통적인 문학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소설 담당층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들은 계속 추구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제들은 준비되고 있는 다른 글에 의해 보충될 것이다.